

경제주평

- 고조되는 이자 부담 가구 중심 가계소비 위축 가능성
- 가계소비 위축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

목 차

■ 고조되는 이자 부담 가구 중심 가계소비 위축 가능성

- 가계소비 위축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최근 소비 위축 요인 검토	2
3. 이자 부담 여부별 가계소비 분석	4
4. 시사점	7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 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저 자 :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고조되는 이자 부담 가구 중심 가계 소비 위축 가능성

- 가계소비 위축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

■ 개 요

최근 국내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 약화와 심리 둔화에 따르는 소비 위축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소비 위축 가능성이 확대된 가운데 가계의 소비전망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계 소비심리 약화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소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2년 상반기 중 가계의 실질 구매력 및 소비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 최근 소비 위축 영향 요인 검토

① 고물가 장기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가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근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고물가 지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6.3%로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5%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계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물가 상승률은 9월 6.5%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했고, 농산물과 석유류의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역시 동월 4.5%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② 고금리 심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금리 또한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여건 상 향후에도 이런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 이후 10월 추가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약 10년 만에 3%대에 진입하였으나,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CD금리(91일)는 10월 26일 현재 3.94%로 약 14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계대출금리(잔액 기준) 또한 월 3.8%에 달했다. 예금은행 변동금리 대출 비중(잔액 기준)이 8월 기준 78.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부담 가중 등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 이자 부담 여부별 가계소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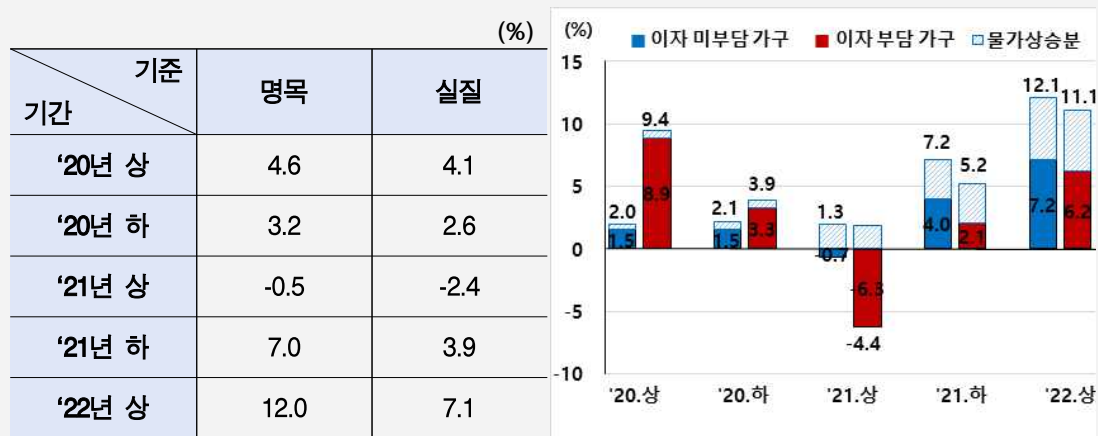
① 이자 부담 가구 현황

국내 이자 부담 가구는 증가세로 이자 비용 규모 또한 2022년 상반기 중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 분석 결과 2022년 상반기 중 이자 부담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5.7% 수준으로 2020년 상반기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자 부담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 역시 2021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2년 상반기에는 약 23만원 수준에 달했다.

② 실질 구매력

국내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증가했지만 명목 기준을 크게 하회해 소득 증가 체감도는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 부담 가구는 미부담 가구 대비 증가세도 낮았다. 2022년 상반기에는 이자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명목 기준을 약 4.9%p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물가로 인해 가계가 실제 체감하는 소득 회복세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자 부담 가구의 2022년 상반기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6.2%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체 가구 및 이자 미부담 가구가 각각 7.1%, 7.2% 증가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 < 이자부담 여부별 가처분소득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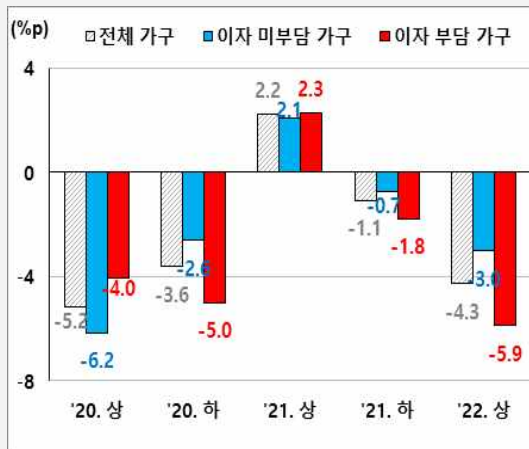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③ 평균소비성향 및 실질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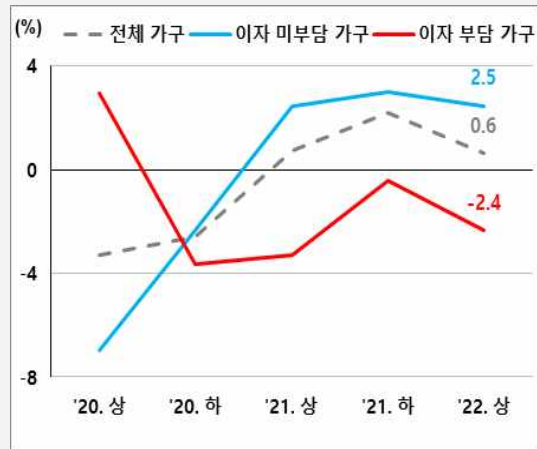
국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자 부담 가구의 경우는 실질 소비지출도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은 전체 가구가 66.0%로 전년동기대비 약 4.3%p 하락, 이자 미부담 가구가 65.5%로 전년동기대비 약 3.0%p 하락, 이자 부담 가구가 66.6%로 전년동기대비 약 5.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자 부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가장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실질 소비지출 역시 2022년 상반기 전체 가구 0.6%, 이자 미부담 가구 2.5%로 증가한 반면에 이자 부담 가구는 -2.4%로 감소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소비성향 증감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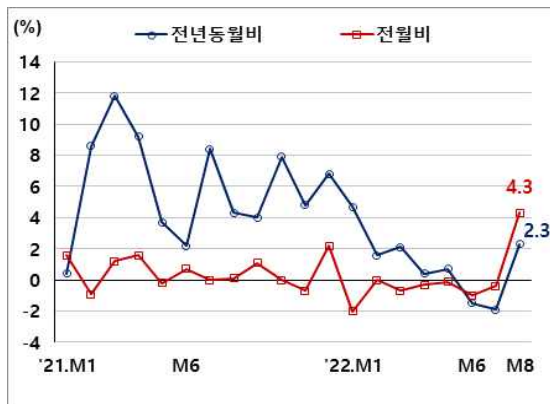
■ 시사점

최근 국내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 가구를 중심으로 한 가계소비 위축과 이로 인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계소비와 관련이 높은 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고금리로 이자 부담 가구의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 중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 겨울 재유행 예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민간 고용시장 안정화를 통해 가계 소득 및 가계 소비심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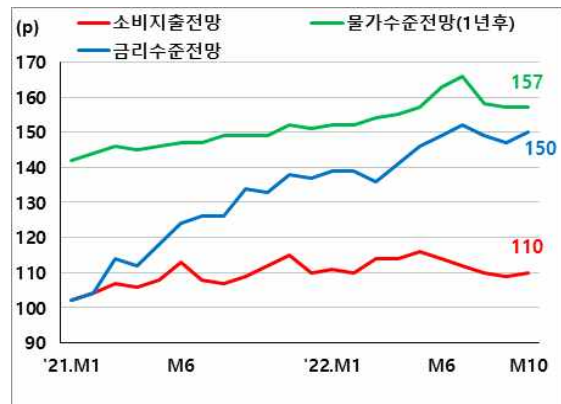
- 최근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 약화와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소비시장 위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 2022년 하반기 이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소비 위축 가능성이 확대된 가운데 소비전망도 하락세를 지속
 - 소매판매액지수는 금년 중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6월과 7월 각각 전년동월비 -1.5%, -1.9%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8월 2.3%의 증가세로 반전
 - 단, 소비자의 6개월 후 소비지출전망 CSI(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소비 개선 지연 가능성 확대
 - 특히, 최근 가계 소비심리 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정점(6.3%) 통과 이후 9월 5.6%의 고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장금리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강화로 상승세 확대
 - 이에 소비자의 물가 및 금리수준 전망도 고수준을 지속 중인 상황
 - 본 보고서는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2년 상반기 중 가계의 실질 구매력 및 소비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019년 1분기~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가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상반기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과 소비성향 및 소비지출 변화를 평가
 - 특히, 이자 부담 여부 별로 가구 특성을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음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소비지출 및 물가·금리전망 CSI >



자료 : 한국은행.

주 : CSI는 소비자심리지수.

2. 최근 소비 위축 영향 요인 검토

① 고물가 장기화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가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근원물가는 상승세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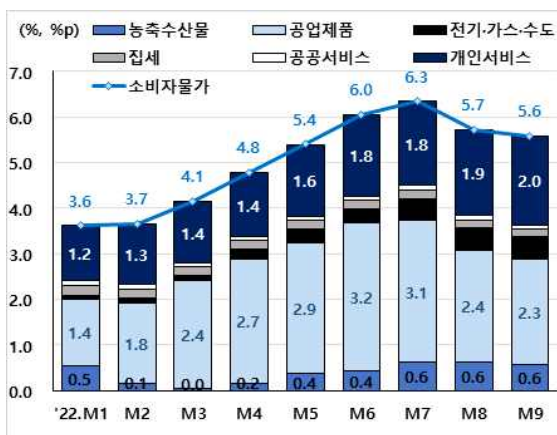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6.3%의 상승률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9월 현재까지 5% 후반대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

- 소비자물가는 2021년 말부터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지난 7월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6.3%의 상승률로 정점을 기록
- 7월 이후 상승세가 소폭 완화되었으나, 8월과 9월 각각 5.8%, 5.6%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 중인 상황
- 특히, 하반기 이후 가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축수산물, 외식 등 개인서비스 품목의 기여도가 확대되는 모습

-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근원물가는 9월 상승세가 확대되며 고물가 현상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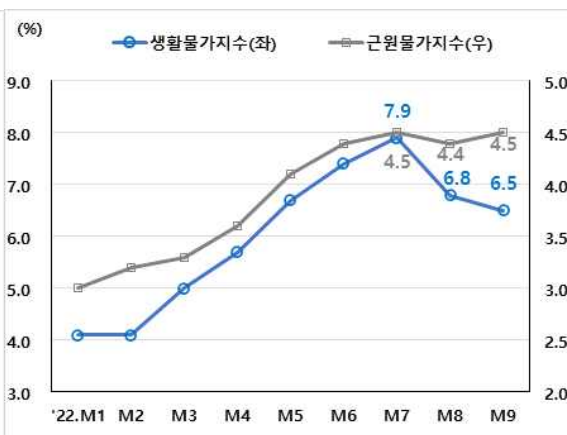
- 가계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물가 상승률은 7월 7.9%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가 소폭 완화되었으나 9월에도 6.5%의 높은 수준을 기록
- 농산물과 석유류의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9월 전년동월대비 4.5% 상승하며 8월(4.4%) 대비 상승세가 확대되어 고물가 현상 장기화가 우려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 · 품목별 기여도 >



자료 : 통계청.
주 :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 생활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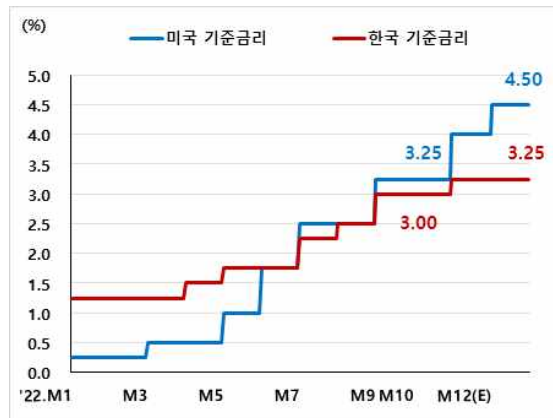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 :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② 고금리 심화

-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금리 또한 높은 상승세를 지속 중이며, 국내외 여건상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 이후 10월 추가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약 10년 만에 3%대에 진입
 - 국내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확대
 - 미국 또한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¹⁾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한국은행 또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
 - CD금리(91일)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9월 평균 3.01%를 기록한 이후 10월 26일 현재 3.94%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가계대출금리(예금은행, 잔액기준) 또한 가파른 상승세로 8월 3.8%를 기록하였음
 - 예금은행 변동금리 대출 비중(잔액기준)이 8월 기준 78.5%를 기록하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고금리의 영향을 받는 가계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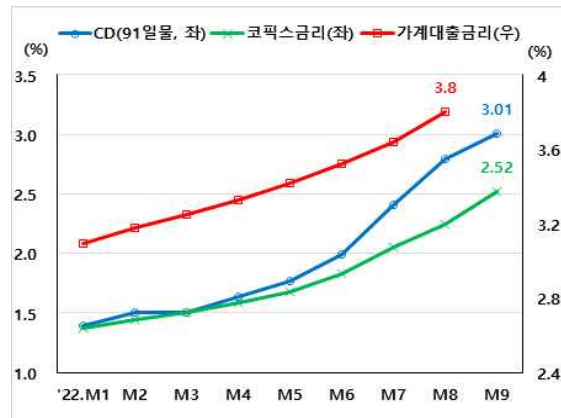
< 한국·미국 기준금리 추이 및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블룸버그.

주 : 11월, 12월은 전망치 기준이며, FED Watch, IB 전망치 평균 등을 참조.

< 시장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주 : 가계대출 금리 및 코픽스 금리는 잔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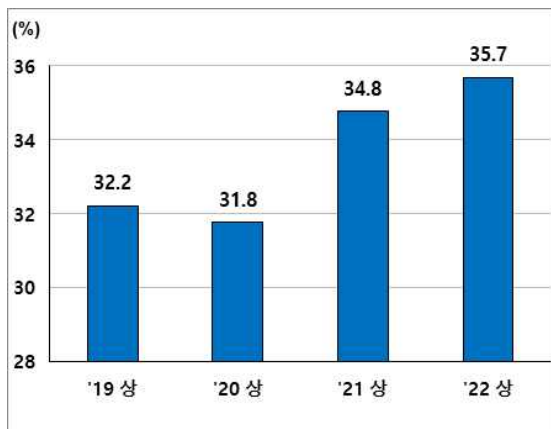
1)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1월 7.5%, 2월 7.9%, 3월 8.5%, 4월 8.3%, 5월 8.6%, 6월 9.1%, 7월 8.5%, 8월 8.3%, 9월 8.2%.

3. 이자 부담 여부별 가계소비 분석

○ (이자 부담 가구 현황) 이자 부담 가구는 증가 추세이며, 이자 비용 금액 또한 2022년 상반기 중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

- 2022년 상반기 전체 가구 중 이자 부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7%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0.9%p 증가
 -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2년 상반기 중 이자 부담 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35.7% 수준이며, 2020년 상반기 이후 증가 추세²⁾
- 2022년 상반기 이자 부담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약 23만 원 수준이며, 감소세를 기록한 202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
 - 이자 부담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중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그러나 2022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2.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가구당 월평균 약 23만 원의 이자를 부담 중인 상황
- 이자 부담 가구와 이자 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가구 특성을 이자 부담 여부 별로 구분하여 가계소비 위축 가능성을 검토
 - 이자 부담 여부 별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과 소비지표의 변화를 분석

< 이자 부담 가구 비중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 이자 비용 금액 및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가계동향조사 2019년 1분기~2022년 2분기(전국, 1인 이상) 가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연도별 1분기와 2분기 평균을 상반기, 3분기와 4분기 평균을 하반기로 정의함.

○ (실질 구매력)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증가하였으나 명목 기준을 크게 하회하며, 특히 이자 부담 가구는 미부담 가구 대비 낮은 증가율을 기록

- 2022년 상반기 가계는 이자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평균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고물가의 영향으로 명목 기준을 크게 하회

- 가계의 실질 구매력 평가를 위해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총소득-비소비지출) 증가율을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이자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명목 기준을 약 4.9%p 하회하여 고물가로 인해 가계가 실제 체감하는 소득 회복세는 미진할 가능성을 시사

- 특히 이자 부담 여부 별로 가구 특성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자 부담 가구의 실질 소득 증가율이 미부담 가구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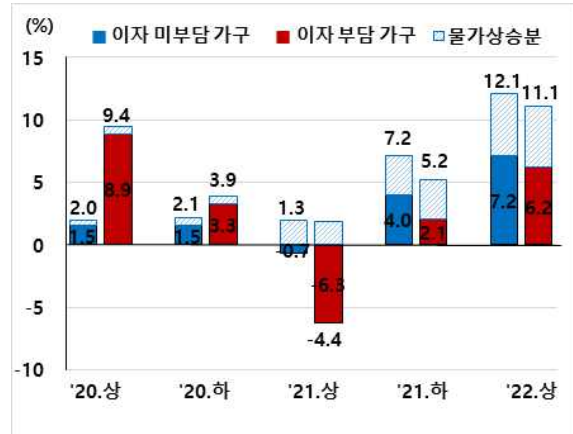
- 이자 부담 가구의 2022년 상반기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6.2%를 기록하여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전체 가구 및 이자 미부담 가구와 동일하게 명목 기준(11.1%)은 크게 하회하였음
- 또한, 이자 부담 가구의 경우 2021년 상반기 가장 큰 소득 충격(-6.3%)을 경험했음에도 미부담 가구(7.2%) 대비 회복세가 미흡한 상황
- 이는 이자 부담 가구의 경우 고물가의 영향에 더불어 타 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소득 회복 정도가 부진할 가능성을 시사

<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

		기준	
		명목	실질
기간	기준	실질 (%)	
'20년 상		4.6	4.1
'20년 하		3.2	2.6
'21년 상		-0.5	-2.4
'21년 하		7.0	3.9
'22년 상		12.0	7.1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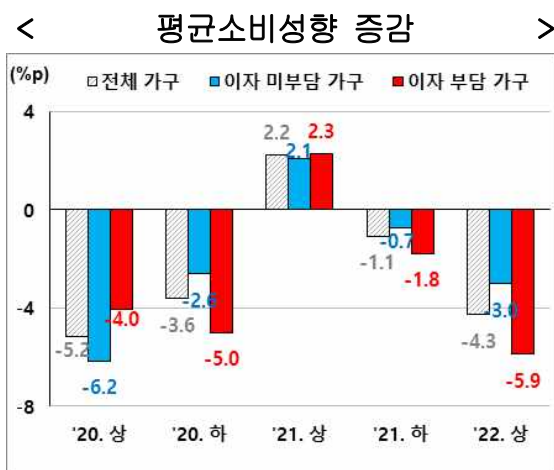
< 이자부담 여부별
가처분소득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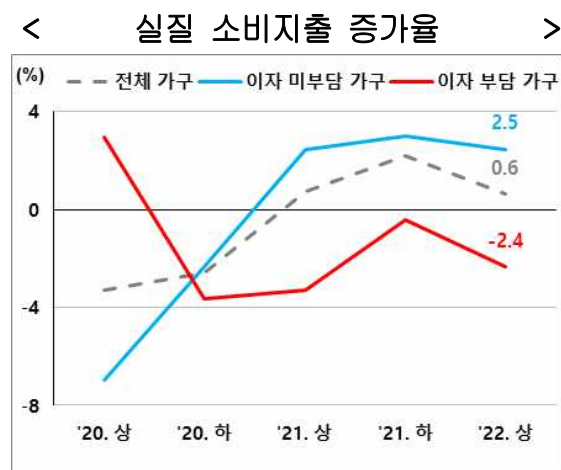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평균소비성향 및 실질 소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자 부담 가구의 경우 실질 소비지출도 크게 악화

- 2022년 상반기 평균소비성향은 이자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자 부담 가구는 가장 큰 하락 폭을 경험
 - 전체 가구의 2022년 상반기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은 66.0%로 전년동기대비 약 4.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자 미부담 가구의 경우 2022년 상반기 평균소비성향이 65.5%로 전년동기대비 약 3.0%p 하락하였으나, 이자 부담 가구의 경우 66.6%로 72.5%를 기록했던 전년동기대비 약 5.9%p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경험
- 실질 소비지출의 경우에도 이자 미부담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이자 부담 가구의 경우 하락세가 심화된 모습
 -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 기준으로 전체 가구는 2022년 상반기 0.6%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이자 미부담 가구는 2.5%의 증가율을 기록
 - 반면, 이자 부담 가구의 경우 2020년 하반기 이후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는 -2.4%로 감소세가 크게 확대되었음
-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이자 부담 가구는 실질 구매력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가계의 소비성향과 실제 소비지출도 크게 약화된 것으로 판단
 - 향후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 장기화 시 이자 부담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4. 시사점

- 최근 국내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 가구를 중심으로 한 가계소비 위축과 이로 인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상황

첫째,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계소비와 관련이 높은 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 2022년 하반기 이후 식품류와 개인서비스 등 소비자의 물가 상승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고물가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해당 계층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의 소비지원책을 검토하는 한편, 시장 차원에서도 독과점 및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부당한 가격인상이 고물가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 한편, 고물가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정책 또한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건전성을 유지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핀셋 재정 집행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둘째, 고금리로 이자 부담 가구의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자 부담 가구 중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국내 고물가 현상 장기화 및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확대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실질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등 소비 위축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한 이자 부담 가구의 소비 위축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특히 이자 부담 가구 중 생계형 대출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경우 저금리 전환 대출, 채무조정제도 등의 대응책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기보다 물가 및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코로나19 겨울 재유행 예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독감과 함께 코로나19가 계절적 재유행 현상을 보인다면 소비와 함께 우리 경제에 단기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 있음
- 독감예방 백신접종 및 취약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개선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원활한 경제·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이벤트성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넷째, 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민간 고용시장 안정화를 통해 가계 소비심리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소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전망되며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내년도의 경우 수출 증가세 둔화, 내수 부진 등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호조를 보였던 금년 대비 고용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이에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서 창업지원,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민간 고용창출력 재고가 필요하며,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일시적 지원책보다 고용안정성 확보를 통한 가계 소비심리 개선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 **HRI**

신 지 영 선 임 연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